# 明代 徐渭의 反復古論 研究

權 應 相

### 1. 問題의 提起

徐渭는 明代 正德 16年(1521)에 태어나서 嘉靖 31年(1593)까지 생존한 사람으로 詩文, 啟曲, 書畵 등 문학예술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적을 남긴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그가 일생을 보낸 明代 中後期는 政治的으로 內患과 外憂가 끊이지 않으며 中國 封建社會가 末期의 矛盾을 노정하던 시기였으며,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 要素의 萌芽로 經濟的 土臺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文化의 主體도 富를 바탕으로 하는新興 市民階層으로 轉移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思想的으로는 이전의전통 理學이 쇠퇴하고 陽明學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으며 禪宗이 광범위하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정치, 경제 및 사상적 상황은 상호 영향을주고 받으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변혁의 波高를 형성하였으므로당시 明代 社會는 바야흐로 각 방면에서 變革의 조짐이 태동한 시기라할 수 있다. 그는 이처럼 변혁이 태동하는 시대를 살면서 保守와 革新의 대립양상을 직접 체험하였고 또 그 속에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혁을 주도한 進步的 知識人의 한 사람이다.

明代의 文學은 漠族의 再建王朝라는 정치적 배경하에 初期에는 王朝를 粉飾하는 臺閣體 文學이 주도했고 그 후에는 이러한 臺閣體 文學의 弊端을 구제하고자 復古派의 復古理論이 文壇을 주도했다. 여기에 더하여 雜劇이 元代에 이어 再興盛한 동시에 南曲의 傳奇가 등장하여 새롭게 성행하였으며, 小說이 大衆의 廣範圍한 환영을 받았고 또 民歌小

曲 같은 민간의 문학양식이 文人의 중시를 받았다. 따라서 明代는 이 미 모든 문학장르가 완비되어 文學의 綜合化가 진행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소위 전통문학이라고 하는 詩文은 부진한 창작과 그것을 탈피하 기 위한 활발한 이론의 전개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시기이며, 戲曲 小說 등과 같은 민간문학은 새로운 문학양식으로 자리를 잡아 성행하 면서 대중적 인기를 확보한 시기였던 것이다. 따라서 明代 文學은 사 회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保守와 革新이 대립하는 한편 雅와 俗이 대립 하면서 조화되는 문학적 특징을 노정하였고 文人들도 이에 따라 다양 한 창작과 비평을 전개했다. 그러나 明代 文學에 대한 일반적 관점은 이러한 綜合的이고 革新的인 특성을 도외시한 채 詩文에서 復古主義가 만연한 퇴행기라고 일컬어지고 戲曲과 小說이 새롭게 등장하여 성행한 시기라는 식의 分離的 視覺에 의해 단순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明代 文學에 대한 平面的 관점으로 明代 文學의 진정한 시대적 특징을 도출한 것이라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明 代 中後期의 문학적 전환기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특성을 인식하여 새 로운 시대적 문학을 모색한 진보적 문인들을 주시하는 것인데 그 선구 자적 측면에서 徐渭를 대표로 정했고 그 중에서도 혁신으로 가는 출발 점이 된 그의 反復古論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시 소위 文學革 新派들은 明代 文學의 종합적 특성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문학의 새로 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시대적 문학 특성을 理論化하고자 했다. 『明史』「文苑傳序」에는 당시 문단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서 그 진보적 문인들의 대체적 면면을 알 수있다.

李夢陽과 何景明이 復古를 제창하며 文은 西京, 詩는 中唐 이하가 아니면 일체 버려버리자 문예에 종사하는 선비들이 일제히 그것을 종주로 삼았다. 明의 詩文은 여기에서 한번 변했다. 嘉靖 時期에 이르러 王愼中과 唐順之의 무리들이 文은 歐陽修와 曾鞏을 종주로 하고 詩는 初唐을 모방했으며, 李攀龍과 王世貞 等은 文은 秦漢을 위주로 하고 詩는 盛唐을 법도

로 삼았으니 王世貞과 李攀龍의 持論은 대체로 李夢陽, 何明景과 서로 倡和한 것이다. 歸有光이 그 조금 후에 출현하여 司馬光과 歐陽修로 自任하며 李夢陽과 何景明, 王世貞과 李攀龍을 힘써 배척하였고 徐渭, 湯顯祖, 袁宏道, 鍾惺과 같은 무리들이 또한 각자 一時를 爭鳴하자 이에 李何와 王李를 추숭하는 자가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李夢陽,何景明倡言復古,文自西京,詩自中唐而下,一切吐棄,操觚談藝之士,翕然宗之,明之詩文,於斯一變,迨嘉靖時,王愼中,唐順之輩,文宗歐曾,詩倣初唐,李攀龍,王世貞等,文主秦漢,詩規盛唐,王李之持論,大率與夢陽明景相倡和也,歸有光頗後出,以司馬歐陽自命,力排李何王李,而徐渭,湯顯祖,袁宏道,鍾惺之屬,亦各爭鳴一時,於是崇李何王李者稍衰.)<sup>1)</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明代 文壇은 復古와 反復古라는 守舊와 革新으로 대립되어 진행되고 있다. "一變"이라는 것은 臺閣體에서 復古主義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復古主義는 徐渭가 살았던 시대와 일치하여 明代 文壇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傾向은 唐宋派의에서 부터 서서히 反復古의 기운이 싹트면서 혁신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였으나 唐宋派의 反復古는 외형만 바꾼 또 하나의 復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당시 문단을 지배하던 復古派에 대한 큰 타격은 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復古派가 쇠퇴하게 된 것은 "各爭鳴一時"한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서 필자는 이들을 진보적 문인들이라고 일컫고 徐渭는 그 선구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새로운 시대상황에따라 출현한 陽明學과 禪宗이라는 사상적 영향하에서 사회의 각 방면을 혁신으로 유도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문학의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로서 문학의 綜合化라는 시대적 특징에 걸맞게 각 장르에 걸친 종합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대적 각

<sup>1)『</sup>明史』卷285.

<sup>2)</sup> 明代 嘉靖·隆慶 年間(1522-1572)에 주로 활동한 散文의 流派로 王 愼中(1509-1559), 唐順之(1507-1560), 歸有光(1506-1571), 茅坤 (1512-1601) 등이 그 대표적 문인이다. 復古派의 "文必秦漢"에 반대 하여 唐宋의 古文을 배울 것을 주장했다.

광은 明代만의 문학적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어 더욱 유용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徐渭는 바로 이러한 時代 思想的 轉換期를 살면서 문학의 혁신을 선도한 사람으로 "各爭鳴一時"의 대열에도 처음으로 언급되는 선구자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문학사적 위치는 明代 文學에 대한 평면적인비평의 영향과 또 일반 문인들과는 달리 科學를 통한 立身揚名에 실패한 布衣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으며, 明代 文學의 문학사적 전개는 으레 復古派와 公安派 위주의 記述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兩派는 물론 明代의 대표적 문학집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徐渭는 이 兩派의 주도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혁신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의 文學論은 明代 文學의 전환기에서 그 전환을 이끈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고 그의 反復古論은 그 출발점인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徐渭의 여러 업적중에서 일단 詩文으로 범위를 좁혔고, 그 중에서도 그것의 反復古論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범위의 한정은 그의 反復古論이 明代 文學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고 또 보다 자세한 고찰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明代文學史에서의 비중과 자세한 고찰이라는 두가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먼저 "徐渭와 復古派"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徐渭가 反復古를 주창하게 된 연원을 살펴본 후,徐渭가 復古主義를 반대하는 기본 논리가 되는 "文學의 時代性"이라는 그의 文學認識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 反復古論의 실제 내용이라 할 수있는 "擬古의 反對"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 후에 문학사에서의 의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영향면을 고찰하고자 하는데,明代 文學史의 한 획을 긋는 대표적 문인인 동시에 徐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公安派의 袁宏道를 그 대표로 정하였다.

### Ⅱ. 徐渭의 復古派

明初 以來 詩文의 創作은 漢族 王朝의 회복과 함께 줄곧 復古主義의기색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文學復古運動이 시작된 것은 弘治年間의 李夢陽(1473-1530)과 何景明(1483-1521)을 영수로 하는 "並七子" 부터라 할 수 있다. 그후 文壇의 전체적 상황은 復古 일변도였고 이 기세는 嘉靖 中後期의 李攀龍(1514-1570)과 王世貞(1526-1590)을 영수로 하는 "後七子"에게로 이어져 最高潮로 치솟았다. 前後七子의 이러한 復古論理는 文學의 發展을 역행하는 것이므로 "擬古"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徐渭는 이러한 文學復古運動의 폐단을 절감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선봉장으로서 그의 文學論은 이러한復古의 반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明代의 詩文은 중국 詩文의 발전사적 측면에서 이미 많은 復古의 단서를 내재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문학사의 관점으로는 詩文은 唐代에가장 국성했고 그 이후로는 점차 쇠퇴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宋代에 이르러 "以理爲詩"와 같은 詩作方法이나 詞라는 새로운 양식의 홍성은 詩文의 쇠퇴에 따른 대안이었고 元代에는 또 雜劇이 일세를 풍미했다. 이러한 史的인 면에서의 詩文의 쇠퇴는 漢族의 정통왕조를 회복한 정치적 상황과 함께 詩文의 쇠퇴현상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復古가 제기된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開國文臣의 영수(開國文臣之首)"5)라고 일컬어진 宋濂(1310-1381)은 明代 文學復古의 首

<sup>3)</sup> 李夢陽과 何景明 외에 徐禛卿, 邊貢, 康海, 王九思, 王廷相 등이 포함되다.

<sup>4)</sup> 李攀龍과 王世貞 외에 謝榛, 宗臣, 梁有譽, 徐中行, 吳國倫 등이 포함된다.

<sup>5)『</sup>明史』卷128,「宋濂傳」.

倡者로 그는 "마땅히 聖人의 글로써 宗旨를 삼아야 한다."6 라고 하여 그 단서가 되었다. 永樂年間에는 또 정치제도의 정비와 함께 文化의統制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歌功頌德하고 太平을 粉飾하는 三楊의 臺閣體7가 출현했다. 楊維楨(1296~1370), 高棅(1350~1423) 등은 이러한臺閣體의 폐단을 지적하고 盛唐의 詩를 주장하였는데, 특히 李東陽(1447~1516)은 "宗唐"과 "法社"를 주장하여 文學復古運動의 序幕을열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는 "그 후 李夢陽, 何景明 等이 盛唐을模擬하여 명성을 날렸으니 그 배태는 실로 여기에서 그 조짐을 보였다."8 라고 하였다.

李夢陽과 何景明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前七子"는 李東陽의 관점을 계승하여 "文必秦漢, 詩必盛唐"을 주장하며 정식으로 文學復古運動을 시작했다. 이러한 文學復古運動은 臺閣體와 八股文, 程朱理學 등의 폐단을 지적하여 學界의 침체과 空疏現象을 구제하려는 시도에서 발단되었다. 그러나 復古派들은 그 실천에 있어서 "문장에는 반드시 法式이 있다."의라며 作家들은 단지 法式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模擬해야 곧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여겨 오히려 "模擬"라는 또 하나의 폐단을 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前七子"의 文學復古運動은 王愼中, 唐順之를 중심으로 하는 唐宋派 作家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 뒤를

<sup>6) 『</sup>浦陽人物記』「文學篇序」:"當以聖人之文爲宗."

<sup>7)</sup> 三楊은 楊士奇(1365-1444), 楊榮(1371-1440), 楊溥(1372-1446)를 가리킨다. 徐一變의「陶安文集序」에는 "당시는 天下가 완전히 정비되어조정은 恩意를 이끌어 떨치고 功德을 歌頌하며 서열을 정하고 문벌을 표창하는 데 힘써서 文物을 빛내고자 하였다.(時天下大定, 朝廷務導揚恩意, 歌頌功德, 推序勳閥, 以昭明文物.)"(袁震宇·劉明今著,『明代文學批評史』(上海古籍出版社, 1991, 上海)에서 再引)라 하였는데, 이것이臺閣體의 특징이다.

<sup>8) 『</sup>四庫全書總目提要』集部,「總集類四」"『唐詩品彙』":"厥後李夢陽,何景明等模擬盛唐,名爲崛起,其胚胎實兆于此."

<sup>9)『</sup>中國歷代文論選』3册, p52, 李夢陽「與周子書」:"文必有法式."

이어 李攀龍과 王世貞을 중심으로 하는 "後七子"가 출현하여 다시 한 번 復古의 기풍은 문단을 휩쓸게 되었다. 이들은 "前七子"의 復古主義 폐단을 인식하면서도 그 대안의 부재로 마땅한 출로를 찾지 못하고 "前七子"의 復古主義 旗幟를 답습하여 더욱 큰 규모로 文學復古運動을 일으켰다. 그 영수라 할 수 있는 王世貞은 古體詩는 漢魏를, 近體詩는 盛唐을, 散文은 先秦과 西漢을 모범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들을 영도하여 復古主義는 前七子에 비해 더욱 극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復 古派의 문학론은 결국 模擬라는 말류적 폐단을 노정함으로써 그 집단 내부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李夢陽은 그 대 표적 예로 晩年에 이르러서야 模擬의 폐단을 인식하여 "지금의 참된 詩는 民間에 있는데 文人學者들은 종종 韻言을 만들고는 詩라고 한 다."10)라 하고, 이어서 또 "나의 시는 참된 詩가 아니다. 王子(王崇文) 가 말하는 文人學者들의 韻言일 따름이니 표출된 情은 부족하고 工巧 한 詞가 많은 것들이다.""라 하였다. 李夢陽의 영향하에 李開先은 民 間歌謠集『市井艷詞』를 편찬하고 그 序에서 "語意가 마음에서 직접 나 왔고 雕琢을 더하지 않았으며, 男女相思의 情을 갖추고 있어서 비록 君臣朋友라도 또한 이것에 기탁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情이 더욱 사 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風」도 민요에서 나왔 으니 참된 詩는 단지 民間에 있다."12)라고 했다. 이것은 詩에서의 模擬 라는 폐단을 개혁하여 民間歌謠와 같은 수식이 없고 자연스러운 情이 표출된 작품을 그 대안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대

<sup>10) 『</sup>中國歷代文論選』 3册, p55, 「詩集自序」: "今虞詩乃在民間, 而文人學子, 顧往往爲韻言, 謂之詩."

<sup>11) 『</sup>中國歷代文論選』 3册, p55, 「詩集自序」: "予之詩, 非眞也. 王子所謂文人學子韻言耳, 出之情寡而工之詞多者也."

<sup>12) 『</sup>中國歷代文論選』 3册, p85, 「市井艷詞序」: "語意則直出肺肝, 不加雕刻, 俱男女相與之情, 雖君臣友朋, 亦多有托此者, 以其情尤足感人也. 故風出謠口, 眞詩只在民間."

안의 모색은 몇몇에 의한 산발적인 시도로 그쳤고 復古의 파고는 더욱 거세어져 明代 文壇의 주류는 復古 일변도로 치달았다.

徐渭는 復古派의 영수인 王世貞과 政治的인 면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여 당시 朝野에서 원망의 대상이었던 嚴嵩을 반대하는 동지의 입장이었다. 당시 嚴嵩을 반대하다 처형된 楊繼盛에 대한 두 사람의 분노는 그 대표적 예이다. 『列朝詩集小傳』에 따르면 王世貞은 "東市에서諫臣 楊繼盛을 통곡하며 그 喪을 치루었다."<sup>13)</sup>라고 했고, 徐渭는 또 楊繼盛을 追念하는 「雨雪」詩 8首<sup>(4)</sup>를 지어 애도하고 嚴嵩 등 부패한 權貴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또 嚴嵩에게 모함당하여 정치적 좌절을겪은 沈鍊에 대해 沈襄의 부탁으로 王世貞은 墓志銘을 썼고 徐渭는「贈光祿少卿沈小傳」을 썼으니 그 정치적 입장은 동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文學理論上에서는 극심하게 대립하였는데 그 발단은 李攀龍과 謝榛(1495-1575)의 문학관 차이로 인한 분쟁이었다. 錢謙益은당시 李攀龍과 王世貞의 文壇 獨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미 于鱗(李攀龍)은 명성이 더욱 높았는데 茂秦(謝榛)과 더불어 문장을 논하면서 자못 서로 깍아내리고 비방하여 于鱗은 편지를 보내 絶交하였으며 元美(王世貞) 등 여러 사람도 모두 于鱗을 편들면서 입을 모아 茂秦을 공격했고 그 이름을 七子·五子의 대열에서 삭제하였다.

(已而于鱗名益盛,茂秦與論文,頗相蠡責,于鱗遺書絶交,元美諸人咸右于鱗,交口排茂秦,削其名于七子,五子之列,)<sup>(5)</sup>

嘉靖年間에 謝榛과 李攀龍, 王世貞 등은 詩社를 만들었으니, 처음에는 謝榛이 그 領首였다. 그 후 李攀龍은 관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文 名이 더욱 높아졌지만 謝榛은 여전히 일개 布衣였다. 이에 따라 두 사

<sup>13)</sup> 錢謙益『列朝詩集小傳』 [集上, p436, [王尚書世貞]: "哭諫臣楊繼盛于東市, 經紀其喪."

<sup>14) 『</sup>徐渭集』,p861.

<sup>15) 『</sup>列朝詩集小傳』丁集上, p423, 「謝山人榛」.

람은 신분적 차이로 점차 톰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文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언쟁속에서 李攀龍은 곧 편지로써 絶交하였고 王世貞 등 七子에 속한 사람들도 모두 李攀龍의 편을 들어 謝榛을 비난하였던 것이다. 徐渭는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고 대단히 분노하여 七言古詩「廿八日雪」을 지어 "謝榛은 이미 더불어 친구가 되었는데 무슨 일로 詩中에서 드러내 놓고 서로 욕하는가? 이에 붉은 수레에 화려한 옷자락을 날리면서 布衣를 魚肉처럼 능멸하는 것을 꺼리지 않은 것임을 알겠도다." 한라. 그 후 王世貞은 李攀龍을 뒤이어 文壇을 獨走했고 더욱 宗派的 활동을 강화하여 거의 모든 문인들이 王世貞을 중심으로 하는 復古派를 추종하게 되었다. 錢謙益의 다음 글은 당시의 그러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王元美(王世貞)는 二季(李夢陽,李攀龍)의 뒤를 이어 번갈아 調盟을 주도하며 同調者를 끌어들이고 자신과 다른 자를 억눌렀으니 謝茂榛(謝榛)은 옛 詩社의 老宿인데도 歷下(李攀龍)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자 合從하여 그를 배척하여 용맹을 세우고 위세를 드러냄으로써 海內의 詞人 중에 그문하에 들어가지 않고 그 壇上을 받들지 않고서 스스로 자립한 자는 드물었다.

(王元美繼二李之後, 狎主詞盟, 引同調, 抑異己, 謝茂秦(榛)故社中老宿, 有違言于歷下, 則合從以擯之, 用以立盧示威, 海內詞人有不入其門墻, 不奉其壇 埋者, 其能自立者亦鮮矣.)<sup>17)</sup>

徐渭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白衣 秀才로써 감히 文壇 盟主의 獨斷과 專橫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기개를 떨첬으니, 따라서 錢謙益은 "徐文長 만이 홀로 깊이 분개하며 스스로 오만하고 방자하게 늙어 죽을 때 까

<sup>16) 『</sup>徐渭集』, p143,「廿八日雪」:"謝榛旣與爲友朋,何事詩中顯相罵?乃知 朱穀華裾子,魚肉布衣無顧忌。"

<sup>17) 『</sup>列朝詩集小傳』丁集中, p496, 「沈記室明臣」

<sup>18) 『</sup>列朝詩集小傳』 丁集中, p497, 「沈記室明臣」: "徐文長獨深憤之, 自引傲僻, 窮老以死, 終不入其牢籠, 於論謝榛詩見志焉."

지 끝내 그 울타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謝榛을 논한 詩에 그 뜻이 드러나 있다."<sup>18)</sup>라고 하였다.

徐渭의 이러한 復古派에 대한 항거는 "嘉靖時에 王世貞과 李攀龍이 七子社를 창도할 때 謝榛이 布衣로써 배척당하자 관직의 권력으로 평 민을 억누르는 것에 분개하여 두 사람의 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맹 세했다."19)라는 설명처럼 同病相憐의 謝榛을 옹호하는 개인적 감정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儒家에 속박되지 않는다"20)는 성격적 자유로움과 權貴에 대한 강한 반감이 깔려 있으며, 더욱 결정적인 것 은 文學論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徐渭는 한 時代에는 그 時代의 文學이 있으며 文學藝術은 마땅히 時代의 進展에 따라 發展 해야 한다는 進化論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徐渭는 "聖人은 때 를 귀히 여긴다."21)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詩라는 것은 옛날에는「康 衢」謠였는데 지금은 점차 마을 배우들의 唱이 되었으며 옛날의 「憤」은 지금 점차 마을 唱者들의 이른바 賓白이 되었나니 모두 시대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22)라 하 였다. 이러한 문학의 시대성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徐渭는 또 復古派 作家들이 模擬로만 흐르는 경향에 대해 "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23) 이라고 풍자하고 "자신이 自得한 것"24)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復古派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스승의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고 門戶에 의지하

<sup>19)『</sup>紹興府志』卷54:"當嘉靖時,王李倡七子社,謝榛二布衣被擯,慣其以 軒冕壓韋布,誓不入二人黨."

<sup>20) 『</sup>徐渭集』, p638, 「自爲墓誌銘」: "不爲儒縛."

<sup>21) 『</sup>湯顯祖集』, p144, 「廣意賦」의 徐渭評語: "聖貴時."

<sup>22) 『</sup>徐渭集』, p491, 「論中四」:"詩也者, 古「康衢」也, 今漸而里之優唱也, 古『墳』也, 今漸而里唱者之所謂賓之白也, 悉時然也, 非可不然而故然之也."

<sup>23) 『</sup>徐渭集』, p519, 「葉子肅詩序」: "鳥之爲人言"

<sup>24) 『</sup>徐渭集』, p519, 「葉子肅詩序」: "己之所自得"

지 않는다."<sup>25)</sup>는 徐渭의 개성적 문학정신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문학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徐渭는 이처럼 復古派가 주도하는 文壇의 상황을 극력 반대하여 模擬의 풍조를 개혁하고 문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反復古論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錢謙益은 徐渭를 일컬어 "王世貞과 李攀龍을 비판하여 그의 持論은 時流와 아주 달랐다." 한라 했고, 또 袁宏道는 "文長의 눈은 千古를 꿰뚫고 한 시대에 홀로 우뚝 서서 당시의 소위 達官貴人이나 騷人墨客" 들을 文長은 모두 꾸짖고 무시했으며, 더불어 사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라 했다. 이러한 평들은 徐渭가 당시 문단의 풍조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世態와 和解되기 힘든 개성적인 문학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이러한 徐渭의 反復古論을 두 부류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復古論理를 반대하는 徐渭의 文學認識인 "文學의 時代性"에 관한 견해이고, 또 하나는 復古派의 말류적 폐단이라 할 수 있는 模擬의 풍조에 대한 徐渭의 反論을 고찰하는 것이다.

## Ⅲ. 文學의 時代性

徐渭의 反復古論은 당시 文壇을 지배하던 復古主義에 대한 반발로서 문학의 時代性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전개되었다. 徐渭는 전통적으로

<sup>25) 『</sup>徐渭集』, p976, 「書田生詩文後」:"師心縱横, 不傍門戶."

<sup>26) 『</sup>列朝詩集小傳』 丁集中, p561, 「徐記室渭」:"譏繳評王李, 其持論逈絶 時流."

<sup>27)</sup> 詩文書畵를 일삼는 사람. 즉, 文人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sup>28) 『</sup>徐渭集』, p1343, 袁宏道「徐文長傳」:"文長眼空千古,獨立一時,當時所謂達官貴人,騷土墨客,文長皆叱而奴之,恥不與交."

문학이 정치의 시녀노릇을 해온 경향을 인식하여 문학과 정치를 분리 하고자 하였다. 사실 중국에서는 문학가와 정치가가 동일신분이었고 그에 따라 문학은 정치의 부대물 내지 고급 사교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농후하다. 문학가가 관직에 있을 때는 자신의 官務를 위한 업 무수단이거나 고급의 사교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관직을 떠나면 비로소 개인적 정서를 표출하는 이중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문학을 정치의 부대물로 인식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문학창작계층의 속성에 말미앆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관직의 명성을 바탕으로 거 대 집단을 형성하여 文學 復古를 주장한 前後七子의 詩文 또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明代 中期 이후에는 전술한 여러 사 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상하계층의 의식이 접근해갔고 문화의 공유추세도 두드러졌다. 그에 따라 문학 창작 계층과 향유계층은 질적 양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문학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따라 출현한 것이 明代에 극성한 이른바 민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小說과 戲曲일 것이다. 당 시의 이러한 민중적 문학장르가 홍성하여 그들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 했다는 것은 기타 정통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詩文에서의 변화를 자극 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사상면에에서의 陽明學이나 宗敎面에서의 禪宗은 詩文에서의 변화를 뒷받침하여 復古派의 형식적인 詩文에 반발 하고 문학을 정치의 부용물에서 독립시켜 자유롭고 개성적인 문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맹아하였다. 徐渭는 이러한 사상 및 종교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또 개인적 입장에서 정치가로서의 立身에 실패한 布衣라는 신분적 해방감으로써 자유롭고 개성적인 문학을 주창하여 反 復古의 선두에 섰던 것이다.

徐渭는 復古派의 반대에 앞서 당시 程朱理學에 함몰된 몰개성의 문학을 극력 반대하여 反復古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고 있다. 程朱理學의 代表人物이라 할 수 있는 朱熹에 대한 다음과 같은 徐渭의 비판은 당 시 文壇을 전횡하던 復古派에 대한 비판의 前奏라 할 수 있다.

文公(朱熹)은 모든 일에 정곡을 맞추려고 하여 결정권을 틀어쥐고 단지 사람들이 그가 聖人이고 조금의 결점도 없다고 말하기를 요구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은 사람마다 모두 그의 뜻과는 맞지 않고 세간에는 일마다모두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못이 없는 것에서도 반드시 잘못됨을 구하려 하나니, 곡식속에서 쌀알을 가려내고 쌀알속에서 벌레를 가려내는 것과 같아 단지 張湯과 趙禹<sup>29)</sup>의 기량이로다.

(文公件件要中鵠, 把定執板, 只是要人說他是個聖人, 幷無一些破綻, 所以做別人着人人不中他意, 世間事事不稱他心, 無過中必求有過, 穀裏揀米, 米裏揀蟲, 只是張湯, 趙禹伎倆.)<sup>30)</sup>

程朱理學은 明代 社會의 官方 哲學으로 사람들의 思想을 규제하여 자유와 개성을 말살하는 전통적 무기였다. 徐渭는 이러한 사상적 규제에 대해 매우 反感을 가져 程朱理學의 대표인물인 朱熹를 이처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徐渭는 朱熹가 어떤 사람이나 무슨 일을 닥론하고 모두 자신의 사상적 가치로써 비판하며 "道學者然"하는 가식적 인물로여겼으니, 이는 당시 理學家의 虛僞와 횡포를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당시 理學의 사상에 함몰된 몰개성의 문학을 반대한 것인 동시에 復古의 기치로 문단을 전황하던 復古派 영수들에 대한 비판의 사상적 기초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復古派가 理學의 敎理에 함몰된 臺閣體의 문학을 반대하면서 내건 復古主義 기치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復古派는 이러한 기치아래 다시 하나의 거대 집단을 형성하여 그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배척하는 독단을 자행했으며 또 復古에서 擬古로, 擬古에서 模擬로 넘어가는 일련의 페단을 노정하여 臺閣體에 뒤

<sup>29) 『</sup>史記』卷122「酷吏列傳」에 나오며 兩者는 漠 武帝 때 律令을 제정한 관리로서 法令을 엄격하고 가혹하게 적용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朱熹의 비평태도가 지나치게 세분되고 엄격함을 비유한 것이다.

<sup>30)『</sup>徐渭集』p1096,「評朱子論東坡文」。

지지 않는 몰개성의 문학을 유도하였다. 徐渭는 이러한 復古派의 폐단을 直視하고 朱鎊를 비판하던 銳鋒을 復古派를 향해 겨누게 되었다. 徐渭는 먼저 復古派를 반대하는 논리로써 당시는 이미 문학가와 정치가가 분리되어 문학이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 서있음에 착안하였고 이에 따라 문학은 시대를 따라 진화하고 발전된다는 문학의 시대성을 강조했다.

누군가 나에게 묻기를 "詩를 지으면 모두 儒家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했다. 나는 "옛날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 했다. 그 사람은 "그렇다면 儒家는 다 詩를 지을 수 있습니까?"라 했다. 나는 "지금은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러했습니다."라고 했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기를 부탁하여 내가 달하기를 "옛날에는 儒家와 詩人 하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理를 이야기하면 儒家가 되었고 소리를 조화시키면 詩人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儒家와 詩人이 다르나니, 이런 까닭으로 理를 이야기 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리를 조화시킬 필요가 없고, 소리를 조화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理에서 얻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漢魏 이래로 부터 初晚唐에이르러서 그 궤도는 옛날 儒者의 이른바 詩에서 스스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或問於予曰:"詩可以盡儒乎?"予曰:"古則然,今則否."曰: "然則儒可以盡詩乎?"予曰:"今則否,古則然."請益,予曰: "古者儒與詩一,是故談理則爲儒, 諧聲則爲詩. 今者儒與詩二,是故談理者未必諧聲, 諧聲者未必得於理. 蓋自漢魏以來,至於唐之初晚,而其軌自別於古儒者之所謂詩矣.")<sup>31)</sup>

여기에서 말하는 "儒"와 "詩"는 정치와 문학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와 문학은 옛날에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漢魏 이래로부터 唐代의 문학은 분명 옛날 정치가들이 말하는 문학과 다르다는 인식이다. 徐渭의 詩論은 『詩經』으로 부터 많이 체득하고 있는데 일찌기 古代의 儒者는 대부분 詩人을 겸하고 있지만 漢魏이후의 儒者는 반드시 詩에 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문학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시대의

<sup>31) 『</sup>徐渭集』 p906, 「草玄堂稿序」.

진행에 따라 발전하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임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漢魏 이후로 詩의 音律章句는 그 자체가 독특한 발전을 하며 진화 해왔고 따라서 시인은 하나의 전문화된 분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藥魏 이전의 詩는 詩의 내적 요소에 치중하여 儒者가 자신의 정감을 기탁하여 시를 지을 수 있었는데 漢魏 以來로는 狹義로서의 女學이 점 점 발전하여 이미 音調字詞를 講究하는 등의 외적 제한이 매우 많아져 점차 전문화되었다. 따라서 양자에 모두 능한 자는 매우 드물게 되었 음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극성한 고위 관리들의 詩文의 代作 풍 조로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니 徐渭의 "古人은 文章을 지음에 他人 을 위해 代作한 것이 드물었다. 대체로 문장에 능한 자는 顯達하지 않 으면 隱居하였으니, 顯達한 자는 귀하게 되어 代作해주고자 해도 되지 않는데 하물며 代作하게 했겠으며, 隱者는 고상하여 代作을 얻으려 해 도 방법이 없었는데 또 어찌 그로 하여금 代作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文章에 대해 말이 밭을 가는 것과 같이 불행하였고 현달하지도 은거하지도 못한 사이에 처하였으므로 따라서 다른 사람이 代作을 부 탁하였고 나는 또 그들에게 代作해줄 수 밖에 없었다."32)라 했다. 徐渭 는 이「抄代集小序」이외에도「幕抄小序」와「抄小集自序」33)등이 있는 데 徐渭의 이러한 代作文集으로도 당시 소위 達官貴人들의 代作 풍조 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代作풍조로 인해 徐渭는 이미 정치가와 문인이 분리되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名"과 " 實"의 관점에서 당시의 代作 풍조의 폐단을 질책한 다음의 말은 그것 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해준다.

<sup>32)『</sup>徐渭集』, p536,「抄代集小序」:"古人爲文章,鮮有代人者,蓋能文者非顯則隱,顯者貴,求之不得,況令其代,隱者高,得之無由,亦安能使之代!渭於文不幸若馬耕耳,而處於不顯不隱之間,故人得而代之.在渭亦不能避其代."

<sup>33)『</sup>徐渭集』, p536.

잠시 지금 吳派畵31의 영수인 英(仇英)과 浙派畵35)의 영수인 進(戴進)으 로써 비유컨대, 가령 그림을 구걸하는 자가 仇英과 戴進에서 實質을 취하 고는 公이니 孤365니 하는 것으로써 名稱을 삼으면 반드시 않될 일이다.375 가령 文을 구걸하는 자가 左(丘明)와 屈(原)에서 實質을 취하고서 左나 屈로 名稱을 삼는다 해도 반드시 않될 것이고, 반드시 趙氏나 孟氏가 될 것이다.38) 어찌 경박한 자가 거짓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거짓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경박하지 않을 것인가?39) 이는 이것(文의 경우)은 마 땅히 '거짓'이고 저것(그림의 경우)은 마땅히 '거짓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옛날의 文은 하나였는데 지금의 文은 둘이기 때문이다.40) 文이 하 나이니 따라서 추천한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文이고, 아름다운 文은 반드 시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은 반드시 숭상하게 된다. 그 런데 지금은 實質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 숭상하는 풍조는 더욱 익숙해져 있어서 實質에서 얻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그 名聲을 바라니, 따라서 거짓 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實質은 바뀌어졌지만 名聲을 추구 하는 풍조는 바뀌어지지 않았으니, 이는 지금의 文을 구하는 자들이 이미 귀하게 여기게 된 것(名實相符한 것)에서 文을 구한 탓이 아니라 바로 지 금의 文을 구하는 자들이 아직 귀하게 되지 않은 것(名實相符하지 않은 것)에서 文을 구한 탓이다. 만약 그림이 하나여서 일짜기 바뀐적이 없듯이

<sup>34)</sup> 明代 남방 계통의 畵派로 吳人이 많았으므로 吳派라 하였다. 그 畵法 은 黃公望, 倪瓚, 吳鎭, 王蒙 등에서 나왔으며 그 주요인물로는 沈周를 비롯하여 文徵明, 唐寅, 仇英, 祝枝山, 徐昌穀, 謝時臣, 陳白陽 등이 있 다. "英"은 아마도 仇英을 말하는 듯 하다.

<sup>35)</sup> 明代 錢塘人 戴進이 창시한 畵派로 南宋의 馬遠과 夏珪 一派의 풍격을 이어서 吳偉, 張路, 何適 등이 그 法을 전수하였으며 藍瑛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날렸다.

<sup>36)</sup> 公과 孤는 둘 다 옛날 官職名이다.

<sup>37)</sup> 仇英과 戴進의 그림을 얻어서는 公이니 孤니 하는 자신의 관직 명칭을 붙여 내보이는 것은 잘못이다.

<sup>38)</sup> 남에게 대필을 부탁하는 사람도 左니 屈이니 하는 사람에게서 대필한 문장을 얻고서 左와 屈을 그 작자로 기록해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 필을 부탁한 趙니 孟이니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된다.

<sup>39)</sup> 따라서 지금 경박한 무리들은 결국 거짓된 문장만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sup>40)</sup> 옛날의 文은 名實이 상부했는데 지금은 실제 작자와 대필을 부탁한 사람 두명이 있게 되었으니, 즉 名實이 상부하지 않다.

지금 선비들에게 文을 구하는 것(文) 또한 하나여서 일찌기 바뀐 적이 없다면 이에 거짓된 文은 없어질 것이다.

(姑譬裘以吳之畵首英,浙之畵首進也,令丐畵者實以英與進也,而名以公與孤必否也,令丐文者實以左與屈,而名以左與屈必否也,必趙以孟也,何輕者之不貴贋,而貴贋者之不輕耶? 非此宜贋而彼宜不贋也,古之文也一,今之文也二,文也一,故薦者必文,文者必貴,貴者必尚.而今也實者亡矣,而其尚者尤習也,不得於實以獨希其名,故習貴贋也.實改而名不改也,非今之求文者求文於既貴者之責也,乃今之求文者求文於未貴者之責也.若盡則一而未嘗有改也,今求文於士者亦一而未嘗有改,斯無贋文矣.)(1)

徐渭는 여기에서 "名實"로써 당시의 문단풍조를 비판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代筆 풍조가 없었으므로 名實相符했지만 지금은 원 작자와 代筆을 부탁한 사람으로 양분되어 名實이 相符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것은 당시의 代筆 풍조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代筆로 인하여 "贋文"이 만연하고 또 경박한 자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문단상황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徐渭는 이러한 문학의 전문화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또 문학 자체의 進化를 깊이인식하였다. 문학의 내재적 요소인 情感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외재적 요소인 字句나 辭藥는 시대에 따라 점차 변해간다. 이에 따라 今人은 변화된 古字古句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註解에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註를 달아 풀이하면 直觀에서 느낄 수 있는 문학의 감동력은 그만큼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徐渭는 문학의 시대성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문학의 감동력을 대칭하는 "興"이라는 관점에서 당시대의 문학을 주장하였으니, 徐渭는 「論中 四」에서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체로 詞가 그 처음에 귀하게 여긴 것은 興이었으며, 따라서 與은 하나였나니, 詞에 있어서 옛 글자가 저와 같은데 사람들은 與을 일으켰고, 詞

<sup>41) 『</sup>徐渭集』, p493, 「論中 六」.

에 있어서 오늘날 글자가 이와 같은데 사람들은 또한 興을 일으키나니, 興 은 같지만 글자는 다를 따름이다. 興은 같은데 글자가 다르다면 옛 글자가 어렵나니, 어려움은 해석을 필요로 하고 해석하면 쉬워지는데, 쉬워 진다 는 것은 엣 것이 아닌 것이고 옛 것이 아니라는 것은 俗된 것이다. 古句는 더욱 어렵나니, 어려움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해석한다는 것은 점점 많 은 다른 종류의 의미를 생기게 하고, 많은 다른 종류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은 옛 것이 아닌 것이며, 옛것이 아니라는 것은 경직되지 않는 다는 것 이니, 이는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로 그 렇게 한 것이 아니며, 興을 일으키느냐 興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 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로 詩라는 것을 보면 옛날의「康衢」 (「康衢謠」를 말하는 것으로 춒임금때의 동요이다.)가 지금은 점차 마을 배 우들의 唱이 되었고 옛날의 「墳」(최초의 책이 일컬어지는 「三墳」으로 「尙 書序」에 따르면 伏羲・神農・皇帝시대의 古書라 한다.)이 지금은 점차 마 을 唱者의 賓白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시대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文과 詩를 표준으 로 삼는 사람들은 「墳」과 賓白, 「康衢」와 배우들의 唱을 어찌 같은 시대에 말할 수 있겠는가? 興에 이르러서는 文은 진실로 賓白만 못하고 「康衢」는 마을 배우들의 唱을 이기지 못하나니, 단지 小人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大 人또한 진실로 그러하다. 오늘날 이러한 것을 견지하고 있는 자들은 오늘 날의 興을 일으키는 것에 힘써지 않고 옛날의 興을 일으킬 수 없는 것에 급급해 하니, 이는 어찌 가죽옷과 갈포옷으로써 따뜻함과 시원함을 취하는 것을 막고, 짐승가죽과 나무잎에서 따뜻함과 시원함을 취하려 하는 것과 다를 것인가! 그것이 옛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니 심히 미혹되었도다!

(夫詞其始也,而貴於詞者曰與也,故詞一也,古之字于詞者如彼,而人興,今之字于詞者如此,而人亦興,與一也,而字二耳.與一而字二者,古字艱,艱生解,解生易,易生不古矣,不古者俗矣.古句彌難,難生解,解生多,多又生多,多生不古,不古生不勁矣.是時使然也,非可不然而故然之也,與不與不係也.故夫詩也者,古康衢也,今漸而里之優唱也,古墳也,今漸而里唱者之所謂賓之白也,悉時然也,非可不然而故然之也.故夫準文與詩也者,則墳與賓,康與里,何可同日語也?至興,則文固不若賓,康不勝里也,非獨小人然,大人固且然也.今操此者,不務此之興,而急彼之不興,此何異奪裘葛以取溫涼,而取溫涼於獸皮也,木葉也,曰爲其爲古也,惑亦甚矣!)420

<sup>42)『</sup>徐渭集』p491.

이 글의 논지는 奇僻한 字나 어려운 文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나 현대인들은 알 수가 없으며, 또「康衢謠」나「三墳」같은 옛날에 유행한 양식을 모방하여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곧 "獸皮木葉"으로 모피옷이나 비단옷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徐渭는 古代 詩文이 곧바로 今人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까닭이 바로 原作의 감동력 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字"나 "句"로 대표되는 문학의 외적 요소인 文 字詞彙가 시대를 따라 변천하여 直觀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 라 여긴 것이다. 따라서 徐渭는 興이라는 문학의 내재적 요소를 도출 해내고 이 興의 관점에서 지금의 戲曲은 또한 옛날의 詩文과 마찬가지 로서 今人의 감정에서는 그 興의 효력이 詩文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徐渭는 上古의 詩에서부터 元明의 戲曲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장르 는 모두 시대의 通俗性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산생된 것으 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興이라는 측면에서 당시대에 당시대 사람들 이 가장 淺近하고 통속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장르가 가장 뛰어난 장 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시에 유행한 戲曲은 사 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르이므로 당시에 가장 적합한 문학 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徐渭의 이러한 논리는 문학의 進化에 따른 시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바로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文學도 進化하므로 작가는 문학의 進化와 보조를 맞추어 創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徐渭의 문학의 시대성에 대한 강조는 "聖貴時"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는 湯顯祖의「廣意賦」를 비평하면서 "오늘날 여름에 갈포옷을 입고 겨울에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겨울에 짐승 가죽을 걸치고 여름에 나무 잎사귀로 가리게 하면 되겠는가? 따라서 聖人은 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45)라 하였다. 이러한 評語는 湯顯祖의 創新性을 칭

<sup>43) 『</sup>湯顯祖集』, p144, 「廣意賦」에 대한 徐渭의 批評:"使在今日夏衣葛而 冬衣裘者, 必冬披獸皮而夏衣木葉者, 其可乎? 故聖貴時."

찬하고 復古派의 復古主義를 풍자한 것으로 위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徐渭의 이러한 文學의 進化에 따른 時代性의 강조는 詞의 演變을 예 로 든 다음의 글에서 더욱 분명하다.

晚唐과 五代에는 填詞가 가장 뛰어나 宋人이 미칠 수 없을 정도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詞는 모름지기 淺近해야 하는데 晚唐의 詩文이 가장 淺近 하여 詞調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上品이 되었다. 宋人은 입을 열면 杜詩를 배워, 格은 높으나 氣는 粗惡하여서 말을 하면 곧 저절로 生硬해 졌으니, 마침내 詞의 格에 부합하지 않는다.

(晚唐五代, 填詞最高, 何也? 詞須淺近, 晚唐詩文最淺, 隣於詞調, 故臻上品, 宋人開口便學杜詩, 格高氣粗, 出語便自生硬, 終是不合格.)<sup>44)</sup>

이것은 詞는 宋代에 가장 뒤어났다는 일반적 견해를 부정하는 것으로 "淺近"이라는 통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晚唐과 五代의 詞가 가장 뛰어나다고 본 것이다. 宋代의 詞는 이미 杜詩와 같은 詩句를 첨가하여 生硬해짐으로써 詞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통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詞는 宋代에 가장 적합한 시대적 장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徐渭가 문학의 시대성을 주창한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徐渭의 이러한 인식은 復古派의 詩文 일변도의 창작풍조에 대항하는 논리인 동시에 詩文이라는 장르를 復古가 아닌 당시대적 특성에 부합 할 수 있는 創新性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徐渭는「胡大參集序」 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今世에 文章을 짓는 자들은 툭하면 漢을 종주로 삼아야 한다며 董仲舒, 賈誼, 劉向, 楊雄을 의지한 자가 천하에 가득차 있고, 詞에 이르러서도 屈 原, 宋玉, 唐勒, 景差가 아니면 책을 덮고 보지도 않는다. 극단적으로 따져 서 文에 있어서 賈誼가 國體에 통달하여 萬言의 疏가 한 글자도 가슴을 써내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을 구했다 해도 과연 滿天下에 유행할 수 있겠는가? 아마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詞에 있어서도 宋玉의

<sup>44) 『</sup>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3册, p244, 『南詞敍錄』.

변론이 蘭臺에서 읊어서는 그 임금을 감격시켜 깨우치게 하는 것을 구했다 해도 다른 시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는데도 오히려 충분히 興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과연 滿天下에 유행할 수 있겠는가? 아마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今世爲文章,動言宗漢西京,負董賈劉楊者滿天下,至於詞非屈宋唐景,則掩卷而不顧.及叩其所極致,其於文也,求如賈生之通達國體,一疏萬言,無一字不寫其胸臆者,果滿天下乎?或未必然也.於詞也,求如宋玉之辨,其風於蘭臺,以感悟其主,使異代之人聽之,猶足以與,亦果滿天下矣乎? 亦或未必然也.)<sup>45)</sup>

이것은 당시 復古派가 "文必秦漢"의 구호로써 문학의 시대성을 무시한 채 復古만 일삼는 풍조의 허구를 파헤친 것이라 할 수 있다. 古代의 문학은 그 당시에는 물론 뛰어난 문학으로 當時代人의 興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에서도 그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徐渭의 이러한 부정은 바로 시대를 따른 문학의발전규율을 파악한 것으로 이미 고대 문학의 文字詞彙는 지금에는 直觀으로 이해되지 못할 정도의 난해한 것으로 변했고 그에 따라 문학의내재적 요소인 "興"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간혹士大夫의 好事趣味로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上下의 광범위한 유행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徐渭는 문학의 내재적 요소인 興의 관점에서 문학의 시대성을 중시하고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문학을 추구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감동할 수 있는 민중적 문학을 지향했다. 이것은 徐渭가 戲曲으로써 그 대안을 삼으려 한 근거가 되는 동시에 詩文에서의 復古派를 반대하는 근거이기도 한 것이다.

<sup>45)『</sup>徐渭集』, p907.

### IV. 擬古의 反對

徐渭는 이상과 같은 문학의 시대성의 관점에서 復古論理의 허구를 갈파하고 復古派를 반대하고 있는데 復古派를 반대한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그 말류적 폐단이라 할 수 있는 模擬의 풍조 때문이다. 당시 문단의 상황은 前七子에 뒤이은 後七子가 많은 文士들을 끌어 들여거대한 문학집단을 형성하여 그 위세는 前七子를 능가하였는데 이들은 復古라는 기치 아래 공공연히 模擬를 자행했다. 이러한 模擬의 풍조는 독창적 개성을 말살하고 문학을 박제화시키는 그릇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陶望齡은「刻徐文長三集序」에서 당시의 문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明이 일어나 經義가 홍성하고 藝文의 학문은 쇠퇴하여, 옛 것을 좋아하 고 박학한 선비들은 餘力만 내어 익힌 것이 늦었고 쌓은 것이 얕았으며 혹 精微하게 궁구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古文辭를 書法에서의 篆籒나 鳥蟲書와 같이 보아, 대략 비슷하게 모양만 같게 하고서는 으스대 며 뛰어나다 말한다. ……옛날에 文章을 지음에는 각각 그 재주를 다 발휘 하여 그 변화로움을 다 터득했으니, 따라서 사람에게는 一家의 業이 있고 時代에는 한 時代의 작품이 있으니, 그 높고 낮음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푸르고 노란 것도 눈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옛것이 지금에 그대로 전수되지 도 않고 지금이 옛것을 답습하지도 않았나니, 요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누 차 변하여 날로 새로와 지고 항상 사용해도 닳아 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端緖는 은미하게 자취를 이었으니, 또 草書나 隸書로 變化하여 도 篆籍의 技法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데, 書法에 깊은 識見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다. 지금 文人들의 議論은 곧 변화를 싫어하고 같기를 숭상하며, 情은 버리고 겉모양만 좋아하여, 보았던 일을 왜곡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라 버린 채 구차히 옛 글에 부화한다. 대체로 복받쳐 토해내는 자는 말을 가리지 않고 직접 부딪쳐 쓰는 자는 일을 가 리지 않나니, 말을 가리면 토해내는 것이 진실되지 못하고 일을 가리면 글 이 갖춰지지 못하는데, 갖춰지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면 詞가 이루어져도

情과 일은 이미 숨어버리게 되어 어둑히 인형의 無情함이나 上鼓 의 韻에 맞지 않는 소리와 같게 된다. 따라서 弘治, 正德, 嘉靖, 隆慶 시대의 門에 는 작자가 숲처럼 서있어서 古學이 빛나고 밝게 드러났지만 이른바 一家 의 말이나 一代의 작품은 아마도 그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한 드물다. ……나는 文은 『左傳』과 『國語』, 詩는 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그것에 염증을 냈고, 班固니 司馬遷이니, 漢나라니 魏나라니 하는 것도 조금 지나자 또 염증을 내어, 그것에서 떠날 생각을 하였다. 그들이 新奇한 것을 좋아할 때에 識者들은 이미 그 비루함을 비웃 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닳아 없어지는 기술인 것이다. 徐渭는 庠序(鄕里의 學校)에서 늙었고 獄에서 액고를 치루었으며 한 때 幕府에서 이름을 날렸 다. 그의 詩나 文은 왕왕 法에 깊고 모양에는 소략하다. 文은 宋과 唐에 비슷하고 詩는 中晩唐에 들숙날숙하다. 자부심이 매우 높아 세칭 문단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 대해 그 당시는 바야흐로 秦猰이나 盛唐을 고상 하게 논하였지만, 그의 體格은 그것에 합치하지 않았으며, 居하는 곳이 또 越에 외지게 있었으므로 따라서 그를 아는 자가 드물었으나 그 文은 실로 법도가 있고 詩 또한 심오하다.

(明興,經義盛而藝文之學寖衰,其好古博物之士,出於餘力,習晚醞薄,或未暇究於精微.其視古文辭,如書者於篆籒蟲鳥然,略取形似,傲然謂能.……古之爲文者各極其才而盡其變,故人有一家之業,代有一代之製,其窪隆可手摸,而青黃可目辨.古不授今,今不蹈古,要以屢遷而日新,常用而不可弊.然微跡其緒系,又如草隸變矣,而篆籍之法具存其間,非深於書者莫能辨也.今文人之論,則惡變而尚同,去情而悅貌, 訓見事,裁己衷,以苟附古辭.夫追而吐者不擇言,觸而書者不擇事,擇言則吐不誠,擇事則書不備,不備不誠則詞成而情事已隱,黯然若象人之無情,而土鼓之不韻,故弘正嘉隆之門,作者林立,古學爛焉修明,而所謂一家之言,一代之製,蓋有其人焉,而亦鮮矣.……吾見有文左國而詩唐者矣,已則人厭之,而班馬,而漢魏,已又厭而思去之矣.方其自喜爲新奇之時,而識者已笑其陋,此必弊之術也.文長老於庠序,阨於獄,一著名於幕府.其爲詩若文,往往深於法而略於貌.文類唐宋,詩雜入於唐中晚.自負甚高,於世所稱主文柄者,不能俯出游其間,而時方高譚秦漢盛唐,其體格弗合也,居又僻在越,以故知之者少,然其文實有矩尺,詩又深奧.)46)

<sup>46) 『</sup>徐渭集』, pp1346-1347,「刻徐文長三集序」.

이 글은 『徐文長三集』의 序文으로서 陶望齡의 논조는 역시 徐渭가 주장한 문학의 시대성을 그 기조로 하여 당시 문단의 상황과 復古의 풍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徐文長三集』이 간행된 것은 萬 曆 28년(1600)으로 徐渭가 죽은지 7년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문단을 주도하고 있었던 公安派의 袁宏道와 이 序文을 쓴 陶望齡은 특히 徐渭 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때에는 이미 徐渭에서 시작된 反 復古의 기풍이 아들에게 이어져 復古의 풍조는 소멸되어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陶望齡은 徐渭가 당시의 復古派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의 독창적 문학을 추구했음을 인정하여 世人들에게 거의 낯설던 徐渭의 文集을 간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徐渭는 이처럼 復古派의 模擬의 폐단을 直視하고 그것을 시정하고자한 당시 문단의 선구자였다. 徐渭는 復古의 풍조가 만연하던 시기에 "自負甚高"하여 그들에게 附和하지 않았고 "時方高譚秦漢盛唐"하는 시대풍조에서 "其體格弗合"하는 개성적 문학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徐渭의 詩文은 唐宋의 풍모가 배어있지만 "法度"가 있고 "深奧"하여 당시 "主文柄者"들의 문학과는 확연히 구별되었던 것이다.

徐渭가 이처럼 당시 復古派와 구별되는 독창적 문학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前述한 문학의 시대성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한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발전된 문학 양식이 따로 있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復古派들은 이러한 시대성을 도외시 한 채 옛것의 규율과 내용만을 추구하여 결국 模擬라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復古派의 문학은 名實이 相符하지 않는 가식적이고 도식화된 경향을 노출시켜 문학의 발전을 역행하였던 것이다. 徐渭의 독설은 이러한 復古派의 폐단을 놓치지 않고 비판하고 있으니 그는 「葉子肅詩序」에서 당시 復古派의 폐단을 질책하여 다음과 같이 새가 사람의 말을 배운 것이라조소하고 있다.

사람이 새의 말을 배우면 그 음은 새이고 性質은 사람이다. 새가 사람의 말을 배우면 그 음은 사람이나 性質은 새이다. 이것이 어찌 사람과 새의 性質을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詩를 짓는 자들이 어찌 이 것과 다르겠는가!

(人有學爲鳥言者, 其音則鳥也, 而性則人也. 鳥有學爲人言者, 其音則人也, 而性則鳥也. 此可以定人與鳥之衡哉? 今之爲詩者, 何以異於是!)<sup>47)</sup>

徐渭의 이러한 조소는 後七子를 중심으로 한 復古派의 말류적 폐단인 模擬의 풍조를 직접 질책한 것으로, 당시 문단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집단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당시의 時流와는 완연히 달랐으므로, 그의 이름은 세인들의 입에 오르 내리지 못한채 외롭고 불우한 일생을 보내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徐渭는 復古派의 復古의 論理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문학은 각 시대마다 각 시대에 가장 알맞는 장르가 있다는 인식아래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淺近"한 문학을 지향하였다. 그는 이러한 지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옛 문학에서 자양을 섭취하여 자신의 문학에 공급했고, 그에 따라 그 시대의 문학에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修學方法은 전통적인 것이니,『文心雕龍』의 「宗經」이나「原道」의 취지가 그러하고, 韓昌黎가 周秦兩漢書만을 제한해서 읽은 것 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또 杜甫가「戲寫六絶句」에서 "따로 僞體를 제거하고 風雅와 가깝게 하면 더욱 스승이 많아지니, 이들은 모두 너의 스승이다."(48)라 한 것과 상통하는 것인데 杜甫는 옛 것에서 법을 취한다는 "親風雅" 외에 "轉益多師"라 하여 못 장점을 널리 섭취함을 더하고 있다. 徐渭 역시 이러한 修學過程을 거쳐 復古派

<sup>47)『</sup>徐渭集』, p519.

<sup>48)</sup> 中國歷代文論選』2册, p60: "別裁僞體親風雅, 轉益多師是汝師." "頹放"은 "不拘禮法"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敍渭자신의 문장 이 옛날과는 달리 세인의 눈을 의식치 않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마음 대로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를 반대하는 문학론을 형성하였으니 그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처음에 여자가 남편집에 시집와서는 붉게 칠하거나 분을 바르고 예쁘게 하려고 찡그리며, 걸음걸이는 감히 치맛자락을 넘지 않고 말을 할 때도 감 히 이빨을 보이지 않나니, 이러하지 않으면 여자의 자태가 아니라고 여긴 다. 수십년이 지나 子孫이 자라고 할머니에 가깝게 되면 연지와 분을 물리 치고 예쁘게 보일려고 찡그리는 것도 그만두고서, 성큼성큼 길어갈 때면 奴婢에게 밭갈고 베짜는 것을 따지지 않음이 없고, 마구 말을 할 때면 닭 장과 우리에서 닭이나 돼지를 부르지 않음이 없으며, 심지어 뻐드렁니를 드러내 놓고 웃고 머리를 쑥대같이 하고서 긁적이기도 하나니, 이전에 이 른바 여자의 자태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정말 얼굴을 붉히면서 단장하고 꾸며서는 어여쁘게 보이려 했고 眞面을 꾸며 거짓으로 분식한 꼴(物)이 라고 여기게 된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오히려 그 유약하고 어린애 같이 나긋나긋함을 바라니 또한 탄식하지 않겠는가? 내가 詩를 배움에도 옛날 에는 어여삐 보이려 했지만 지급은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방종하는데 (頹放 한데), (그 과정이) 자못 이와 비슷하니, 그 시누이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음이 많았을 것이다. 지금 酈君의 詩를 교감해 보니 멍하니 이러한 과정과 합치되어 숙연히 얼굴을 가다듬게 되나니, 대체로 정말 나 보다 앞서는 늙은 시누이를 얻은 것 같도다.

(始女子之來嫁於壻家也,朱之粉之,倩之顰之,步不敢越裾,語不敢見齒,不如是,則以爲非女子之態也. 迨數十年,長子孫而近嫗姥,於是黜朱粉,罷倩顰,横步之所加,莫非問耕織於奴婢,横口之所語,莫非呼鷄豕於圈槽,甚至齲齒而笑,蓬首而搔,蓋回視向之所謂態者,眞報然以爲妝綴取憐,嬌眞飾僞之物.而娣姒者猶望其宛宛嬰嬰也,不亦可嘆也哉? 渭之學爲詩也,矜於昔而頹且放於今也,頗有類於是,其爲娣姒哂也多矣.今校彲君之詩,而恍然契,肅然歛容焉,蓋眞得先我而老之娣姒矣.)<sup>49)</sup>

徐渭는 갓 시집온 여자를 詩學에 갓 入門한 사람으로 비유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갓 시집온 여자는 처음에 여자다움을 보이기위해 화장도 하고 언행도 조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자의 자태(女子

<sup>49) 『</sup>徐渭集』, p579, 「書草玄堂稿後」.

之態)"라고 표현했다. 이것을 詩에 대입하면 이미 확실한 전형으로 굳 어 있는 옛 名人들의 작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詩를 처음 배우게 되면 이 전형에 따라 학습하여 전형과 비슷해지려고 조탁하고 가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손이 장성하고 할머니가 될 때 쯤이 면 여자들도 처음의 "女子之態"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격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듯이, 詩學도 이러한 초기의 과정이 지나면 이 전 형의 模寫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과 정감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 고, 이렇게 해야 진정 자신만의 鞏固한 文學世界를 구축할 수 있는 것 이다. 徐渭 자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옛날에는 갓 시집은 여자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여 모방하고 조탁했지만 지금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頹且放"하다고 自述하고 있다. 그리고 模擬를 일삼는 復古派와 같은 문인들을 "娣姒"로 비유하고 이들은 오히려 갓 시집은 여자의 가 식을 더욱 추구한다고 비꼬고 있다. 徐渭는 또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 내어 할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남의 詩를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을 "老之 娣姒"로 비유하고, 자신의 "矜於昔而頹且放於今"한 詩學過程이 "先我 而老之娣姒"에게 많은 비웃음을 샀을 것이라고 자책하고 있다. 이상의 논지를 살펴보면 徐渭는 詩學의 초기단계는 옛것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자신만의 본래 경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復古派들은 초기단계에만 머물러 여전히 갓 시집 온 여자처럼 假飾과 模擬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미 "近嫗姥"하여 자신 의 본래 면목을 드러낸 "老之娣姒"와 같은 徐渭의 관점에서는 가소로 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徐渭는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 復古派의 가식적인 復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眞古"를 주장하고 있으니「論中 四」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의 詞를 지어서 관직의 명칭을 서술하는

자는 옛날의 직함이 저와 같으면 곧 오늘날의 직함도 반드시 저와 같이 적는다. 地名을 서술하는 것도 옛 명칭이 저와 같으면 곧 오늘날의 명칭도 반드시 저와 같이 한다. 기타 그렇지 않음이 없다. 이에 저들은 옛날에 살았지만 곧 나는 오늘날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옛 것을 사모하면서도 그 진실된 옛 것은 반대하나니, 미혹됨이 심하다. 비록 그러하다고 해도말에 나아가서는 詞를 지어 人心에서 興을 취하는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詞가 한갖 사람의 입에서 興을 취하고, 사람의 귀에서 興을 취하고, 사람의 눈에서 興을 취하여 마치 짐승가죽이나 나무잎에서 따뜻함과 시원함을 구하고서는 옛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것은 또한 오늘날보다 폐단이 심한적이 없다.

(學一焉,今之爲詞而敍吏者,古亡如彼,則今亡必彼也.而敍地者,古名如彼,今名必彼也.其他摑不然.而乃忘其彼之古者,卽我之今也,慕古而反其所以虞爲古者,則惑之甚也.雖然,之言也,殆爲詞而取興於人心者設也,如詞而徒取興於人口者也,取興於人耳者也,取興於人目者也,而直求溫涼於獸與木也,而以爲古者,則亦莫弊於今矣.)<sup>50)</sup>

이것은 바로 문학의 시대성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復古派의 폐단인模擬를 질책한 것이다. 徐渭의 "彼之古者,即我之今也"라는 의식은 바로 復古派의 "慕古而反其所以眞爲古"하는 復古派의 詩文을 공격하는 주된 논점이다. 따라서 徐渭가 復古派를 공격한 주된 내용은 眞古로써假古를 타파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眞古"의 예로서 "取興於人心者"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가 반대한 復古派의 "假古"에 대한 예로서 "取興於人口者", "取興於人耳者", "取興於人目者"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徐渭가 復古派를 반대한 관점은 "人心"의 "興"으로서, 바로 감동력에 따른 것이다. 復古派의 "假古"로 예를 든 "口 耳 目"은모두 형식적 측면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대표하는 "心"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復古派가 옛 것에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도외시한 채 형식만을 模擬한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復古論理는 臺閣體의 부화한 형식을 개혁한다는 출발자체의 명분은 충분

<sup>50)『</sup>徐渭集』, p491.

히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지만 論理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맹목적인 모방으로 나아가고 만 것이다. 따라서 徐渭는 復古派의 그러한 폐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徐渭는 당시의 이러한 模擬의 폐단을 "莫弊於今"이라고 개탄하며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때문인가? 모두 답습하고 모두 표절하며 모두 침잠<sup>51)</sup>되어, 노비는 하나인데 그 부리는 자는 백사람이기 때문이다.<sup>52)</sup> 그 가장 천한 것은 또 완전히 비만이거나 완전히 刖刑을 당한 것과 같으며<sup>53)</sup>, 모두 스스로 부화 회동하거나 모두 唐나라 사람과 같이 되기를 구하여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모두 靑州의 丸藥<sup>54)</sup>격이다. 말이 그것에 합치된 것은 곧 때우 기뻐하지만 말이 합치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비웃지 않으면 곧 혈뜯고 화를 낸다. 귀에서 唐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는 말이 처음에 풍성하면 곧 놀라는데 하물며 그 위에야, 귀에서 漢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는 그런 말을 하는 무리를 음미하지도 않고 무수한 말로 침이 마르게 칭찬는데, 하물며 그 위에야. 이러하니 그 노예에 의해 부려지는 자는 많아야 몇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고 적으면 몇 십자 몇백자도 쏘자 못하고 그칠 뿐인데, 종종 침뱉은 찌꺼기 밥을 주워서는 기름지다 여기고서 스스로 보양으로 삼는다. 간혹 그들을 좇아 마음에서 興을 일으키는 것과 아울러 이른바 귀, 눈, 입에서 興을 일으키는 것을 논해보면 갑자기 할말을 잃어버리나니, 그 페단은 이와 같도다.

(何者? 悉襲也, 悉剿也, 悉潦也, 一其奴而百其役也, 其最下者, 又悉朦也,

<sup>51) &</sup>quot;潦"는 "근원이 없는 물"의 의미가 있으므로 근원을 알지 못한채 답습하고 표절함을 비유한 것인듯 하다.

<sup>52)</sup> 옛 것 하나를 놓고 온갖 사람이 模擬함을 비유한 것이다.

<sup>53) &</sup>quot;朦"은 몸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을 말하고 "刖"은 斷足刑으로 발굼치 비는 형벌을 당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양자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듯 하다. 즉, "朦"은 너무 비대하고 "刖"은 발굼치가 없어서 무엇인가 모자라니 둘다 비정상적인 상태를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up>54)</sup> 靑州의 丸藥은 옛날에 아주 효험있는 약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오늘날에는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더욱 효과가 좋은 약이 있기 때 문에 그 옛날의 약은 소용이 없듯이 復古派의 模擬의 文章은 지금에 는 無用한 것임을 비유하는 것이다.

悉刖也,悉自雷也,悉求唐子而不出域也,悉青州之藥丸子也.語之其所合者則 欣然,語之其所不合與不知者,不笑則訕且怒矣.耳而曰唐矣,語初盛則愕,矧 其上,耳而曰漢矣,舍有味乎其言之輩,數語而涸,矧其上.是其諸所爲奴而役 者,多不踰數葉凉,少不能數十百字而止耳,往往拾唾餕以爲腴,而自以爲養. 間從而論其興於心,幷其所謂興于耳目口者,而忽焉其若喪,夫其弊也如是.)55)

이것은 앞의 인용문에서 이어지는 글인데 徐渭는 여기에서 復古派의 模擬의 폐단을 보다 구체적인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으며 "不笑則訕且 怒"하는 그들의 宗派的 利己主義까지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맹점을 秦漢이나 唐이라는 구호에만 현혹되어 실질을 도외시하는 것이 라 지적하고 있으니 徐渭의 비평은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人心"에서 興을 취하는 자도 없는데 "人心"과 "耳目口"에서 두루 興을 취하는 자는 아예 없다고 극언하고 있는 것이다.

徐渭는 이처럼 옛날에서 法을 취하여 개성을 말살시키면서 學者然하는 文人들의 세태를 또 滑稽的 筆法으로써 다음과 같이 풍자하고 있다.

옛날에 子夏는 出入하면서 본 것으로써 서로 싸우다가 야위었다. 56) 지금 나의 친구 劉君은 일찌기 화려하고 성대함을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子夏가 出入할 때 본 것으로 고민할 때와 같이 모습이 또한 야위었으니 어찌된 것인가? 대체로 그 사람됨이 文에 온갖 힘을 기울이며 上古의 것이 아니 면 말하지도 않는다. 옛날에 李白이 杜甫를 괴롭게 읊조려 파리해졌다고 조롱했는데, 내가 여러차례 君이 詩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杜甫보다 재 주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생각은 그 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였으니, 그가 야위어진 것도 당연하리라. 또 옛날에 뭇 신선들이 山澤에서 야위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그대의 야윔이 어찌 그 부류이고는가? 곧 또 詩人과는 거

<sup>55)『</sup>徐渭集』, p491.

<sup>56)</sup> 子夏(B.C.507-?)가 魏文侯의 스승이 되었을 때, 魏文侯가 溫柔한 古樂보다 사람을 자극하는 화려한 今樂을 좋아하여 양자간의 음악에 대한 의론이 있었다. "子夏出入所見"이라는 것은 아마 그러한 화려한 今樂을 出入時에 보았다는 것이고, "交戰而權"라는 것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리가 멀도다. 안목을 갖춘 자가 그것을 알기를 기다리고자 한다.

(昔子夏以出入所見,交戰而權,今吾友劉君,未嘗有慕於紛華盛麗,若子夏所見於出入之時者,而貌亦甚癰何耶?蓋其爲人大肆力於文,非上古語不道,昔太白嘲子美苦吟而瘦,余數見君談詩,似短子美,思欲出其上,其癟宜矣,且古謂列仙山澤之癰,今君之權,豊其流耶?則又去詩人遠甚矣,尚俟具眼者知之,)500

이것은 마른 얼굴의 "劉子"라는 사람의 초상화에 대한 贊으로서 復 古派 詩人의 詩作에서의 고뇌를 조소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포된 의 미는 설사 그 詩人이 그토록 고민하여서는 自我陶醉하고 오만해도 그 것이 참된 詩人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결국 模擬만을 일 삼게 됨을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옛 시인에 근접하려고 고민 하여 모습은 杜甫처럼 야위어졌지만 결코 그 詩는 杜甫와 같지 않고 오히려 그 시를 모방만 할 뿐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詩人 자신의 拙才 를 드러내는 일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徐渭는「自畵小像」에서 "나는 날때부터 살이 쪘는데 약관의 나이에는 말라서 옷을 이길 수 없을 정도였고 30의 나이에는 다시 점점 살이 쪄서 이 그림과 같이 미련스럽게 되었다."58)라 했다. 徐渭는 또「書草玄堂稿後」에서 자신의 詩學過程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갓 시집온여자가 화장하고 가식하듯이 "矜於昔而頹且放於今"하여 "老之娣姒"에게 비웃음을 당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장을 종합해 보면, 徐渭가 弱冠의 젊은 나이에는 수척했는데 이것은 바로 옛것을 배우며 科擧로써立身하고자 하는 근심 때문이었으며, 30의 나이에 뚱뚱해졌다는 것은 科擧를 포기하여 옛것을 버리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학을 추구한 편안함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즉, 徐渭 자신도 修學過程에서 이러한 復古派와 같은 고뇌를 했지만 결국 참다운 문학에 이르지 못했고후에야 이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학을 창조할 수 있었음

<sup>57) 『</sup>徐渭集』, p985, 「書劉子臣小像」,

<sup>58)『</sup>徐渭集』, p585,「自畵小像」:"吾生而肥, 弱冠而羸不勝衣, 既立而復漸以肥, 乃至於若斯圖之痴痴也."

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徐渭가 자신의 문장에 대해 自評한 다음의 글은 더욱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田生(田水月,즉 徐渭)의 문장은 六經, 先秦의 諸子와 諸史를 융합하였고 더욱 합치되는 것은 蒙叟(莊子)와 賈長沙(誼)이다. 잠시 가까운 格을 따져보면 韓愈와 蘇軾을 겸하였지만 또한 그 정수를 쓰고 그 껍질은 버렸을 따름이다. 스승의 마음을 마음껏 펼치고 門戶에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지적할 만한 답습의 흔적은 없게 되었다. 詩 또한 모방하지 않을수 없는 것인데 역시 하나도 모방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진실로 기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이 말을) 알아주는 자가 없으니 따라서 그 말이 오만하고 스스로 높여서 賢人의 병폐5의를 범하는 것이로다. 아! 괴이할 것도 없도다.

(田生之文,稍融會六經,及先秦諸子諸史,尤契者蒙叟賈長沙也. 姑為近格,乃兼幷昌黎大蘇,亦用其髓,棄其皮耳. 帥心横從,不傍門戶,故了無痕鑿可指. 詩亦無不可模者,而亦無一模也. 此語良不誑. 以世無知者,故其語亢而自高,犯賢人之病. 噫,無怪也.)<sup>60)</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徐渭는 修學에 있어서 옛 것을 결코 배척하지 아니했다. 經書와 諸子百家에서 부터 莊子, 賈誼에 이르기 가지 徐渭는 上古의 문학을 두루 섭렵하였고 가까이는 昌黎와 蘇軾을 배웠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옛것을 그대로 模擬한 것이 아니라 그정수만을 취하고 외형은 버렸으며, 門戶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곧 스승이라는 "師心"을 마음껏 펼쳐 자신만의 문학을 구축해 갔으니, 이 것이 徐渭가 復古派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이자 그들의 模擬의 폐단을 질책하는 論據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徐渭는 옛것을 修學하였지만 지적할만한 천착의 흔적이 없고 또 하나도 模擬한 것이 없다는 자부심을

<sup>59)</sup> 聖人(孔子)은 남들이 스스로 자신을 알아주므로 그 말은 스스로를 낮추고 賢人은 그렇지 못하므로 따라서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도록 오만하게 스스로를 높여서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賢人의 병폐"라는 것은 徐渭의 말이 "亢而自高"한 것을 말한다.

<sup>60) 『</sup>徐渭集』, p976, 「書田生詩文後」.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徐渭가 復古派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模倣에만 그쳐 작자의 개성이 없는 박제된 문학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여기에서 분명히 알수가 있겠다.

徐渭는 이처럼 修學過程에서는 復古派와 같은 길을 걸었으나 그것에서 자양만을 섭취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학으로 나아갔고, 復古派는 그것을 지나치게 따지고 추구하여 결국은 模擬로 나아갔다는 차이가 있다. 양자가 모두 새로운 문학에의 돌파구로써 옛것에서 착안하였지만 徐渭는 이것을 문학의 시대성에 맞추어 시대의 양식에 부용하는 개성적인 양태로 표출하였고, 復古派는 단지 옛것에 얽매여서 문학의 발전 규율을 역행하는 구태를 표출한 것이다. 徐渭의 이러한 개성적인 문학은 또 결국 復古派의 이러한 폐단에 의해 촉발되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시도였으므로 徐渭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虞淳熙의 다음과 같은 말은 당시 復古派의 위세와 아울러 徐渭의 反 復古를 확인시켜 준다.

王世貞과 李攀龍은 文苑의 君王이다. 文苑에 두 王이 없다면 곧 王世貞이 홀로 왕일 것이다. 나는 靑衿(學生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울타리 안에서 王世貞과 李攀龍에게 揖을 하였는데, 李攀龍은 긴 귀밑머리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고, 王世貞은 짧은 귀밑머리가 풍성하게 늘어져 있었으니, 외모는 기이함이 없으나 빠뜨리는 선비 없이 모두 수하로 끌어들였다. 끌어들이지 못한 자가 두사람 있었는데 풍채 좋고 기이한 徐渭와 작고 예리한 湯顯祖이다.

(元美于鱗,文苑之南面王也,文無二王,則元美獨矣,余衣靑衿,揖王李於藩,李長鬢而修下,王短鬢而豊下,體貌無奇異而囊括無遺士,所不能包者兩人, 傾偉之徐文長,小銳之湯若士也.)<sup>61)</sup>

이것은 당시 復古派의 두 영수가 徐渭와 湯顯祖만을 일파로 끌어들이지 못했음을 말한 것으로 그의 反復古가 후대에도 인정받고 있

<sup>61) 『</sup>徐渭集』, p1353, 「徐文長集序」.

음을 말해 주는데, 激道人의 "내 말하건대, 徐渭를 七子와 견주어 보면 마치 越의 여러 峰들이 계곡이 깊고 삼림이 우거지지 않음이 없지만 구름 끝의 廬山이나 中天의 峨眉山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뒤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52)라는 평가에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童二樹는 "죽기를 작정하고 저항하는 눈속에는 七子도 없었는데 어찌 죽은 뒤에 袁宏道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53)라고 하여 그의 復古派에 대한 반대의 격렬함을 추숭하고 그것이 袁宏道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諸家의 언급들은 모두 徐渭가 당시 復古派에 영합하지 않고 그 폐단을 바로 잡으려 한 공로를 인정한 말로서 그 영향의 一段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 V. 徐渭 反復古論의 影響

이상과 같은 徐渭의 反復古論은 明末 文學革新派로 일컬어지는 公 安派의 영수 袁宏道에게 직접 계승되어 明代 문학이 復古에서 벗어 나 明代만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혁신적 문학으로 진입하는 계기 가 되었다. 袁宏道는「徐文長傳」을 지어 다음과 같이 徐渭를 추숭하 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마을을 지나다가 北雜劇에 『四聲猿』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意氣가 豪達하여 근래 書生들이 연출하는 傳奇와는 매우 달랐고 天池生이라고 표제되어 있어 无人의 작품인가 의심했다. 후에 越에 가서는 人家의 單幅에 田水月이라고 서명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強心鐵骨과 일종의 돌덩이처럼 불평이 쌓인 기세를 字勘속에서 완연히 알 수 있었다. 속

<sup>62) 『</sup>徐渭集』, p1357, 「四聲猿引」: "余謂文長之視七子, 猶於越諸峰非不幽 折森秀, 以較雲端廬阜, 天半峨眉, 尚覺瞠乎其後."

<sup>63)「</sup>題青藤小像」:"抵死目中無七子, 豈知身後有中郎。"(王運熙, 顧易生의 『中國文學批評史』(上海古籍出版社, 1986, 上海), p291에서 再引)

으로 매우 놀랐으나 田水月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에 陶(望齡)의 編修樓에 앉아서 내키는대로 서가에서 책을 뽑다가 『闕篇』詩 한 질을 뽑았는데 나쁜 종이와 붓으로 썼고 또 연기에 그을러 꺼멓게 되어 字形도 희미했다. 겨우 등불에 가서야 읽었는데 몇 수를 읽기도 전에 나도모르게 깜짝 놀라 뛰며 급히 石簣(陶望齡)를 불러 "『闕篇』은 누가 지은것인가? 지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石簣는 "이것은 나의고향 선배인 徐天池 선생의 글인데 선생의 이름은 潤이고 字는 文長이며嘉靖과 隆慶間의 사람으로 오육년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卷軸의 미리에 표제된 田水月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비로서 앞뒤로 의심하던 사람이 모두 徐渭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또 詩道가 황폐해진때에 이 秘奇를 얻었으니, 마치 가위눌리다가 깨어난 듯하였다. 두 사람은뛰어 일어나 등불 야래에서 읽다가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또 읽으니, 잠자던 僮僕이 모두 놀라 일어났다. 나는 이로 부터 사람을 대하거나 편지를 쓸때 모두 文長先生을 으뜸으로 일컬었다. 나를 보러오는 자가 있으면 곧 詩를 꺼내어 그와 함께 읽으니, 일시에 명공거장들이 두루 흠모하게 되었다.

(余少時過里肆中,見北雜劇有『四聲猿』,意氣豪達,與近時書生所演傳奇絕異,題日天池生,疑爲元人作.後適越,見人家單幅上有署田水月者,強心鐵骨,與夫一種磊塊不平之氣,字志之中宛宛可見.意甚駭之,而不知田水月爲何人.一夕坐陶編修樓,隨意抽架上書,得『闕編』詩一帙,惡楮毛書,煙煤敗黑,微有字形.稍就燈間讀之,讀未數首,不覺驚躍,急呼石簣,"『闕編』何人作者,今耶古耶?"石簣曰."此余鄉先輩徐天池先生書也,先生名渭,字文長,嘉隆間人,前五六年方卒,今卷軸題額上有田水月者,即其人也."余始悟前後所疑,皆即文長一人.又當詩道荒穢之時,獲比奇秘,如魔得醒.兩人躍起,燈影下讀復叫,叫復讀,僮僕睡者皆驚起.余自是或向人或作書,皆首稱文長先生.有來看余者,即出詩與之讀,一時名公鉅匠,浸浸知嚮慕云.)64)

袁宏道는 어렸을 때 徐渭의 『四聲猿』과 書卷를 본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徐渭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는 徐渭는 평생 布衣로 지냈고 또 權貴와 사귀기를 꺼려하였으므로 그 명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陶望齡의 書樓에서 舊書를 뒤적이다가 마침내 徐渭의 『闕編』을 보았고 마침내 어릴 때 보았던 『四聲猿』과 書卷의 작자가 동

<sup>64) 『</sup>徐渭集』, p1342.

일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놀라움을 "如魘得醒"이라 표현하고 "皆首稱文長先生"이라고 극찬하고 있으니, 당시 袁宏道의 경탄정도를 짐작할 수 있겠다. 袁宏道가 徐渭의 詩를 보고 이처럼 놀라워 하고 경탄한 것은 그의 말대로 당시는 復古主義의 말류적 폐단으로 模擬의 풍조가 만연한 "詩道荒穢之時"였는데 그 사이에서 徐渭의詩는 "奇秘"였던 것이다.

袁宏道의 이러한 평가는 그가 추구하는 문학론과 徐渭의 문학론이 일치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황폐한 문단에서 의로운 투쟁을 하던 중에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문학적 동지를 만났기때문인 것이다. 그 후 袁宏道는 『徐文長三集』을 評選하였고, 萬曆 42年 (1614) 錢塘 鍾人傑 刊本의 『徐文長文集』30卷이 편찬되었다. 이 책의卷首에는 黄汝亭과 虞淳熙의 序가 있고 正文 앞에 "袁宏道中郎評點"이라 서명되어 있다. 黄汝亭의 序에는 "鍾瑞先(人傑)은 異人을 좋아하여들 되풀이하여 그 文集(『徐文長三集)을 낭송하곤 했는데, 中郎의 帳中本을 얻어 마침내 기뻐하며 校刻한 것이다."65)라 하였다. 이 책은 서울대 圖書館 舊藏圖書(『徐文長文集』8册 30卷)와 奎章閣圖書(讀書坊藏板『徐文長全集』10册 30卷)에도 소장되어 있는 등 이 후 가장 광범위하게 流傳되어 徐渭의 성가를 한껏 높여주었다.

袁宏道는 徐渭의 이러한 詩文集으로 자신의 문학론을 더욱 성숙시키고 완정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니,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袁宏道가 이 문집을 칭찬한 것을 보고 "袁宏道의 격찬을 보면 그 취미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겠다."66)라 했다. 따라서 양자의 문학관을 대비해

<sup>65) 『</sup>徐渭集』, p1355,「徐文長集序」:"鍾生瑞先嗜異人, 常三復其集, 因得中郎帳中本, 遂喜而校刻之."이 刊本은 商濬의 『徐文長三集』 原刊本을 저본으로 하여 『徐文長三集』의 약 3분의 1을 빼고「補遺」1권을 더한것이다.

<sup>66) 『</sup>四庫全書總目提要』,p3918,「集部 別集類存目五」"『徐文長集三十卷』":"觀袁宏道之激賞,知其臭味所近矣."

보면 徐渭의 袁宏道에 대한 영향의 일단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袁宏道는 李贄, 湯顯祖, 焦瑝竑 등과 서로 사귀며 王陽明 心學과 禪宗에 심취하는 등 그 사상적 영향이 徐渭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영향하에 袁宏道 역시 封建思想의 반역자로서 당시 程朱理學의 속박을 반대하고 個性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袁宏道는 이러한 사상적 영향하에서 徐渭의 反復古論을 계승하여 復古派의 擬古 風潮를 극력반대했다.

東宏道는 "옛날에는 옛날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시대가 있다. 古人의 언어의 발자취를 답습하면서 옛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엄동에 여름의 갈포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67)라 하고, 또 "옛 것이 지금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은 趨勢이다. ……세상의 道가 이미 변했고 文 또한 그것을 따르나니 지금 것이 옛 것을 모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한 추세이다. ……人事나 사물의 상태는 시대에 따라 바뀌고鄉語나 方言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68)라 하였다. 袁宏道는 이러한 문학의 시대성이라는 관점에 따라 復古派의 擬古 論理를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대체로 詩文은 근대에 이르려 지극히 비천해졌나니, 文은 반드시 秦漢에 맞추려 하고 詩는 반드시 盛唐에 맞추려 하여, 답습하고 模擬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아 추종하는데, 一語라도 닮지 않은 사람을 보면 곧 함께 들여우의 外道라고 손가락질한다. 文은 秦漢에 맞춘다고 하나 秦漢人이 언제 글자마다 六經을 본받은 일이 있었으며, 詩는 盛唐에 맞춘다고 하나 盛唐人이 언제 글자마다 漢魏를 본받은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도다? 秦漢代에 六經을 본받았다면 어찌 또 秦漢의 글이 있었겠으며, 盛唐代에 漢魏를 본받

<sup>67) 『</sup>袁宏道集箋校』, p709, 「雪濤閣集序」: "夫古有古之時, 今有今之時. 襲古人語言之迹, 而冒以爲古, 是處嚴多而襲夏之葛者也."

<sup>68)『</sup>袁宏道集箋校』, p515,「與江進之」:"古之不能爲今者也, 勢也. ……世 道旣變, 文亦因之, 今之不必假古者也, 亦勢也. ……人事物態, 有時而更, 鄉語方言, 有詩而異."

았다면 어찌 또 盛唐의 詩가 있었겠는가? 오직 時代마다 昇降이 있을 뿐이고 法은 서로 좇지 아니했으니, 각자 지극히 변화하고 각자 그 취향을 궁구하였으므로 고귀할 수 있었나니, 원래 우열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蓋詩文至近代而卑極矣,文則必欲準于秦漢,詩則必欲準于盛唐,禮襲模擬,影響步趨,見人有一語不肖者,則共指以爲野狐外道.曾不知文準秦漢矣,秦漢人曷嘗字字學六經歟?詩準盛唐矣,盛唐人曷嘗字字學漢魏歟?秦漢而學六經,豈復有秦漢之文,盛唐而學漢魏,豈復有盛唐之詩?唯夫代有升降,而法不相沿,各極其變,各窮其趣,所以可貴,原不可以優劣論也.)<sup>69)</sup>

이것은 문학의 시대성에 따라 復古派의 "文必秦漢, 詩必盛唐"이라는 擬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 袁宏道의 정연한 논리를 알게 해주는 글이다. 이러한 袁宏道의 이론은 徐渭와 하등 다를 바가 없으 니, 袁宏道는 徐渭의 문학론을 계승하여 보다 구체화 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徐渭에 대한 袁宏道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徐渭에 대한 추숭의 정도 와 그 영향을 더욱 입증한다.

徐渭는 이미 雅正하여 당시의 조류와 맞지 않았고, 당시의 이른바 문단을 쥐고 흔드는 자들을 徐渭는 모두 꾸짖고 화내었다. ……先生의 詩文은 세차게 일어나 近代의 황폐한 습속을 일소하였으며 百世 이래로 저절로 定論이 있게 되었다.

(文長既雅不與時調合,當時所謂騷壇主盟者,文長皆叱而奴之. ·····先生詩文堀起,一擩近代蕪儻之習,百世而下,自有定論.)<sup>70)</sup>

이것은 徐渭가 당시 復古派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는 개성적인 詩文을 창작함으로써 당시 復古派들의 폐단을 일소하고 후대에 문학의 올바른 "定論"을 제시했음을 말한 것이다. 成復旺은 『中國文學理論史』에서 "그(袁宏道)는 일생동안 두 사람을 가장 信服했

<sup>69)『</sup>袁宏道集箋校』, p188,「敍小修詩」.

<sup>70)『</sup>徐渭集』, pp1343-1344,「徐文長傳」.

는데 한 사람은 李贄이고 한 사람은 徐渭이다." 라고 했다. 실제로 衰宏道는 徐渭를 "我朝第一詩人" 라고 칭하였고, 또「上馮侍郎(琦)座主書」에서 "저는 근대에 徐渭라는 한 詩人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詩는 등지에서 완전히 날아올라 스스로 손과 눈을 표출했습니다. 長吉(李賀)의 기이함이 있으면서도 그의 말보다 유창하고, 工部(杜甫)의氣骨을 빼앗고 그 껍질은 벗어버렸으며, 子瞻(蘇軾)의 辯論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의 氣보다 빼어났습니다. 七子는 물론이고 何景明, 李夢陽이라도 마땅히 그보다 떨어집니다. 七승께서 그 詩를 본적이 있는지모르겠군요?" 라고 극찬하고 있으니, 徐渭의 문학을 매우 추숭했음을 알 수 있다. 袁宏道의 이러한 추숭은 바로 徐渭의 詩를 "詩道가 황폐해진 때의 奇秘" 14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復古派가 횡행하여 詩文의 發展을 退行시키고 있었던 당시 문단상황에서 徐渭의 詩文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Ⅵ. 結 論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徐渭의 反復古論은 당시 문단을 횡행하던 復 古派의 폐단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혁신적 입장에 서 제기된 것이다. 徐渭는 文學의 시대성에 착안하여 反復古論의 기본 적 관점을 정립하였다. 즉, 그는 한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문학이 있다

<sup>71)</sup> 成復旺·蔡鍾翔·黄保眞 著,『中國文學理論史』(北京出版社,1987,北京)第三册,p240:"他一生最佩服兩個人,一個是李贄,一個是徐渭."

<sup>72)『</sup>袁宏道集箋校』, p506,「與吳敦之」.

<sup>73)『</sup>袁宏道集箋校』,pp769~770,「上馮侍郞座主書」:"宏於近代得一詩人日徐渭,其詩盡飜窠臼,自出手眼.有長吉之奇而暢其語,奪工部之骨而脫其膚,挟子瞻之辨而逸其氣.無論七子,即何李亦當在下風.不知師曾見其詩否?"

<sup>74)『</sup>徐渭集』, p1342,「徐文長傳」:"當詩道荒穢之時, 獲此奇秘"

는 문학 진화론의 관점을 견지하여 復古主義는 문학의 진화라는 시대성을 여행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그것을 문학의 내재적 요소인 "興"으로 개념화하고 復古派의 復古主義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그는 復古主義의 폐단을 擬古라고 지적하고 그기에서 파생된 模擬나 표절을 극력 반대하였다. 本稿에서 논하지는 않았지만 徐渭는 그대안으로 眞情感이 표출된 개성적인 문학을 주장하여 明代文學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자신이 自得한 것에서 나오고 남들이이미 말한 것을 표절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復古派를 반대하는 가장기본적 논리인 동시에 "근"로 대표되는 작자의 개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사람이 태어나 땅에 떨어지게 되면 곧 情에 의해 부림을 당하게 된다." 라는 대전제하에 "詩本乎情" 으로 대표되는 "情"을 중시하여 그 속에 진솔한 情感을 표출시킬 것을 주장하였다.이것은 徐渭가 復古派에 대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친 것이아니라 그 폐단을 직시하고 바로잡고자 한 증거이며, 문학의 진정한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徐渭의 이러한 反復古論은 당시 復古派의 模擬의 詩文을 개혁하는 유력한 이론적 기반이 되어 혁신과로 불리우는 문인들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혁신과의 대표적 인물인 袁宏道에 대한 徐渭의 영향은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는 徐渭의 詩文이 近代의 거칠고 황폐한 습성을 일소하여 "百代 아래의 定論"79)이라고 추숭하며 徐渭의 文學論을계승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袁宏道의 反復古論과 情을 중시하는 문학관은 徐渭의 文學論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러한 袁宏道의 평가는 빈말이

<sup>75) 『</sup>徐渭集』, p519, 「葉子肅詩序」: "出於己之所自得, 而不竊於人之所嘗言."

<sup>76) 『</sup>徐渭集』, p1296, 「選古今南北劇序」: "人生墜地, 便爲情使."

<sup>77) 『</sup>徐渭集』, p534, 「肖甫詩序」.

<sup>78) 『</sup>徐渭集』, p1344, 袁宏道「徐文長傳」: "百世而下, 自有定論."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徐渭의 反復古論은 明代文學을 특징지우고 있던 復古에서 탈피하여 문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또 袁宏道에게 직접 계승되어 보수와 혁신이 대립하는 당시 문단상황하에서 혁신으로 넘어가는 교량역할을 한 것으로 자리매김 할 수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徐渭集』:徐渭,中華書局,1983,北京.

『徐文長全集』(10册30卷):徐渭 著・袁中郎評點,讀書坊藏板, 서울大學 校 奎章閣圖書本.

『徐文長文集』(8册30卷):徐渭, 서울大學校 舊藏圖書本.

『盛明百家詩』: 兪憲 刻, 서울大學校, 舊藏圖書本.

『袁宏道集箋校』:袁宏道 著·錢伯城 箋校,上海古籍出版社,1981,上海.

『湯顯祖集』:湯顯祖,上海人民出版社,1973、上海.

『焚書/續焚書』:李贄,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4, 臺北.

『明儒學案』:黄宗羲, 華世出版社, 1987, 臺北.

『列朝詩集小傳』: 錢謙益, 上海古籍出版社, 1983, 上海.

『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臺灣商務印書館, 1985, 臺北.

『中國歷代文論選』(全4册):郭紹虞 主編,上海古籍出版社,1982、上海.

『徐渭論稿』:張新建,文化藝術出版社,1990,北京.

『徐渭的文學與藝術』:梁一成,藝文印書館,1977,臺北.

『徐渭研究』:張孝裕, 學海出版社, 1988, 臺北.

『中國文學史』: 金學主,新雅社, 1989, 서울.

- 『明代文學批評史』:袁震宇・劉明今,上海古籍出版社,1991,上海.
- 『中國文學理論史』(全5册):蔡鍾翔・黄保眞,北京出版社,1987,北京.
- 『竟陵派與晚明文學革新思潮』:竟陵派文學研究會編, 武漢大學出版社, 1987, 武昌.
- 『袁中郎文學研究』: 田素蘭, 文史哲出版社, 1982, 臺北.
- 『袁中郎研究』:任訪秋,上海古籍出版社,1983,上海.
- 『晚明文學革新派公安三袁研究』:張國光 黄清泉 主編, 華中師范大學出版社, 1987, 湖北.
- 「徐渭的文學藝術成就」:胡錦賢,『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6年 第5期.
- 「論徐渭的審美歷程與古典精神的自足輪回」:孟澤,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90年 第4期.
- 「徐渭之生平及其文學觀」:蔡營源,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碩士 論文,1972,臺北。
- <sup>□</sup>Hsu Wei(1521-1593): His Life And Literary Works<sub>→</sub>: I-cheng Liang,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73.
- 「徐文長の明淸文學史における意味」: 倉光卯平, 『西南學院大學文理論 集』第10卷
- 第2號, 1970.
- 「關于李夢陽的"晚年悔悟"問題」:假可齨,『文藝理論研究』 1991年 第2期.
- 「明代 前後七子의 詩論 研究」: 元鍾禮,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 文, 1989.

### 國文提要

徐渭는 明代 正德 16年(1521)에 태어나서 嘉靖 31年(1593)까지 생

존한 사람으로 詩文, 戲曲, 書畵 등 문학예술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 적을 남긴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그는 明代 中後期의 변혁이 태동하는 시대를 살면서 保守와 革新의 대립양상을 직접 체험하였고 또 그 속에 서 시대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혁을 주도한 進步的 知識人의 한 사 람이다. 당시 문단상황은 保守와 革新이 대립하는 한편 雅와 俗이 대 립하면서 조화되는 문학적 특징을 노정하였고 文人들도 이에 따라 다 양한 창작과 비평을 전개했다. 徐渭의 反復古論은 이러한 문단상황하 에서 復古主義의 폐단을 절감하고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혁신적 입 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는 한 시대에는 그 시대반의 문학이 있다는 문학 진화론의 관점을 견지하여 復古主義는 문학의 진화라는 시대성을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그것을 문학의 내재적 요소인 "興"으 로 개념화하고 復古派의 復古主義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그는 復古主義의 폐단을 擬古라고 지적하고 그기에서 파생된 模擬나 표절을 극력 반대하였다. 徐渭는 그 대안으로 眞情感이 표출된 개성적 이 문학을 주장하여 明代文學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出於己之所自得,而不竊於人之所嘗言."라는 말은 復古派를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 논리인 동시에 "己"로 대표되는 작자의 개성을 그 대안으 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人生墜地, 便爲情使."라는 대전제하에 "詩 本平情"으로 대표되는 "情"을 중시하여 그 속에 진솔한 情感을 표출시 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徐渭가 復古派에 대해 단순히 반대를 위 한 반대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폐단을 직시하고 바로잡고자 한 증거 이며, 문학의 진정한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徐渭의 反復古論은 당시 復古派의 模擬의 詩文을 개혁하는 유력한 이론적 기반이 되어 혁신파로 불리우는 문인들의 선구적 역할 을 했다. 혁신파의 대표적 인물인 袁宏道에 대한 徐渭의 영향은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는 徐渭의 文學論을 계승하여 復古의 반대에 앞장 서 마침내 復古主義는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徐渭의 反 復古論은 明代文學을 특징지우고 있던 復古에서 탈피하여 문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또 袁宏道에게 직접 계승되어 보수와 혁신이 대립하는 당시 문단상황하에서 혁신으로 넘어가는 교량역할을 한 것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